

# 연구노트

-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방안 연구

최유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변화와 인력활용 지원 방안

김영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방안 연구

최유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부터 시작된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는 공간을 포함한 지역사회 및 정책의 재구조화가 성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성 평등 사업이다. 하지만, 2013년 현재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성 주류화 만큼이나 논쟁적이며, 지향과 전략은 있으나 완결된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한 분야의 사업으로 풀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은 그간 성 평등과 연관된 문제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 및 공간 정책’을 성 평등 정책으로 수용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39개 여성친화 지정도시에서 추진 중인 ‘공간조성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채 화장실·주차장 등의 단위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가 여성 참여 증대로 단순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공간 사업의 방향이 단순하게 이용자의 편리와 쾌적의 문제로 협소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 결과는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과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정주여건에서 여성의 일과 목소리에 주목하고, 어떤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므로써 공간 영역에서 성 주류화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지역사회 공간 구조의 구성과 변화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관계와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기회 구조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근대 도시성 및 공정성에 대한 여성주의 이론가의 논의와 근대 도시계획 및 건축에서 여성 배제성에 대한 여성주의 지리학 연구에 근거하여 공간 조성의 효과가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함을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 사업 방향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의 범위를 도시 공간 조성 관련 법, 여성친화지정도시 사업 추진 현황 및 공간에 대한 여성 요구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이 국내 도시 공간 계획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체계화하여 사업 추진에 현실성을 부여하고자 하며,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구역과 단위 시설 간 사업의 구분과 연계 방안을 명확히 한다.

셋째, 여성친화도시는 그 추진방법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여성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바 여성친화도시 추진 방법과 연계된 공간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 시민의 공간 조성에의 참여가 단순하게 도시 정책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일로만 제한된다면 공간 조성이 또 다른 성 차별적인 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제도화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이외에도 일상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동질화되지 않고 중심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조성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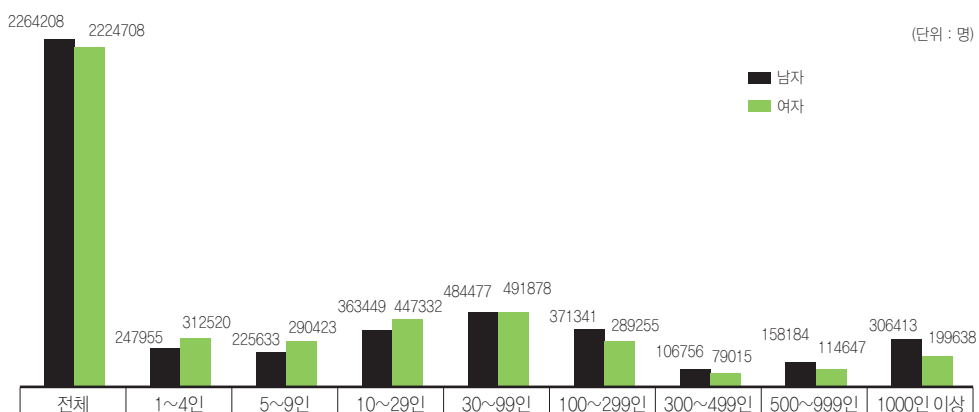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변화와 인력활용 지원 방안

김영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가 탈산업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업종과 기업규모의 분포가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기업규모를 보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0대 기업집단이 재편되고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고용비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궁금해진다.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통계는 지난 2000년에서 2011년의 12년간 남성과 여성종사자수는 각각 226만명, 222만명이 증가했는데 여성종사자는 남성에 비해 100인 미만,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서의 증가분이 많은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고용증가의 절대규모가 남성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참고). 예컨대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지난 12년간 남성종사자는 31만명이 늘었으나 여성은 20만명 늘었다. 따라서 여성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2000년 이후 기업규모별 여성인력의 비중과 고용구조의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 원자료(각연도).

<그림 1> 2000~2011년간 규모별 남녀 종사자수 증가분

업종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여성종사자의 평균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여성의 비율은 감소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전체 규모에서 여성고용비중이 감소한다. 이것은 제조업의 감소 추이와 맞물리면서 여성비중이 높은 업종의 쇠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영세규모에 비해 큰 규모의 사업체내 여성고용비중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이 발견된다. 작은 규모에서의 여성비율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데 비해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여성비율이 감소하여 규모에 따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즉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종사자수가 감소하는 것은 주로 300인 이상 규모에서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기준, 10~19인 규모의 여성비율이 29.0%로 가장 많고, 1000인 이상 규모가 19.0%로 가장 낮다.

<표 1> 연도별 사업체규모에 따른 여성평균비율

(단위 : %)

년도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2000	32.2	34.0	32.9	31.6	28.4	25.0	24.7
2001	32.3	33.5	32.3	31.7	28.0	23.8	22.5
2002	32.2	33.3	32.2	32.1	27.9	25.0	21.0
2003	31.3	32.2	32.0	31.7	28.5	26.9	20.4
2004	30.6	31.1	31.2	31.1	27.3	26.9	20.4
2005	29.9	30.1	31.0	30.3	25.7	25.3	23.1
2006	29.1	29.4	28.9	28.0	29.9	24.3	21.2
2007	28.9	29.0	28.3	27.7	25.9	21.4	20.1
2008	28.2	28.4	26.8	26.2	23.0	21.0	20.1
2009	28.3	28.2	27.4	27.3	24.4	21.5	19.3
2010	27.9	27.9	27.1	26.5	24.1	20.7	21.4
2011	29.0	28.2	27.5	26.2	22.0	20.0	19.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 원자료(각연도).

이와 같이 여성근로자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소기업 고용 비중의 증가추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중소기업 고용비중 증가가 갖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업규모별 여성고용구조의 특성을 살피고, 성별 기업규모별 근로조건, 노동복지, 일·가정 양립 지원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여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황 정 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연이은 주거안정대책 발표, 전월세대란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간 과중한 주거비 부담과 지하실, 반지하,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상황 등 주거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거빈곤, 주거복지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여성가구주가구는 대표적인 주거빈곤집단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지만, 실제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주거점위형태는 통상 가구단위로, 그 중에서도 남성부양자가구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혼율 증가, 만혼화와 비혼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가구유형의 출현은 남성부양자가구모델에 기반한 주거점위형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갖는 사회경제적지위상, 이들은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거실태 조사자료에서는 새로운 가구유형의 출현과 확대에 따른 이들의 주거실태와 변화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제한적이다. 이혼, 비혼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및 한부모가구 증가와 같은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혼, 이혼 등에 따른 여성가구주 가구 출현과 확대에 따른 주거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주거정책을 분석하고, 비혼1인가구와 저소득한부모가구의 주거와 관련한 잠재된 정책 수요를 가시화하여 현행 주거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및 여성가구주를 위한 신규 주거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1)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분석, 2)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분석, 3)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수요 발굴, 4)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등이다.

첫째, 현행주거복지정책의 현황 분석에서는, 그간 실시되어 왔던 주거복지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한부모 가구, 비혼1인가구가 정책대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는지,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등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분석에서는,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가구주가구의 소득, 연령, 가구규모, 가구유형 등에 따른 주거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고 우리나라 평균 주거수준과의 비교 분석도 실시할 것이다.

셋째,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수요 발굴에서는, 비혼1인가구, 저소득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집담회를 운영하여 기존 주거지원정책의 이용경험, 이용시 애로사항, 향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와 제안 등을 발굴할 것이다. 또한 대상별 공통적인 정책수요와 차별적인 주거정책 수요를 파악할 것이다.

넷째,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위해서는,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와 시사점을 토대로, 집담회 운영결과를 통해 발굴된 정책수요를 통합하여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위한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신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가족변화에 따른 주거실태의 변화, 새로운 주거수요 출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주거빈곤 완화와 여성.가족과 관련된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동안 취약계층 주거정책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여성, 가족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여성, 가족과 주거이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추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